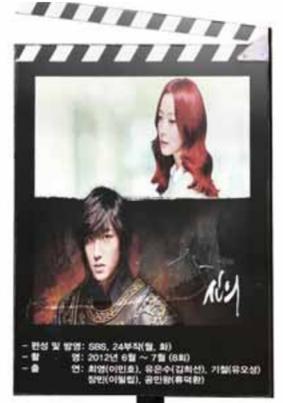


드라마 주인공처럼 가야 저잣거리 누벼 볼까



창원 해양드라마세트장을 가다

경남

드라마 '김수로', '무신', '장옥정, 사랑에 살다', '육룡이 나르샤' 등과 영화 '조선미녀삼총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시대적 배경도 다르고 출연진도 분명 다르다.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창원의 해양드라마세트장에서 촬영을 했다는 것이다. 창원 해양드라마세트장은 드라마 촬영 및 해양교류사 홍보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석곡리 9947㎡의 부지에 약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0년 4월 조성했다.

**9947㎡ 부지에 가야 선착장·범선·생활용품 재현
무신·육룡이 나르샤·영화 조선미녀삼총사 등 촬영
포토존 인기...입장료 무료·방문 여부 사전 문의를**

세트장 입구에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이곳에서 촬영한 16편의 드라마와 영화 포스터가 전시돼 관람객들을 반긴다. 제일 먼저 촬영한 것은 드라마 '김수로'(MBC). 김수로는 세트장에서 2010년 5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총 20회분을 촬영했다. 첫 드라마를 찍은 장소답게 세트장 건물 곳곳에는 김수로의 주요장면 사진이 배치돼 있다. 포스터 16개를 보다 보면 '저 드라마도 이곳에서 찍었구나'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드라마를 볼 때는 전혀 촬영 장소를 떠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라. 가장 최근 포스터는 MBC 드라마 '빛나거나 미치거나'. 장혁과 이화리가 출연했으며,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3회분을 촬영했다.

세트장은 모두 6개 구역 총 25채의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다. 가야시대의 아찔장, 선착장, 저잣거리, 가야풍의 범선, 각종 무기류, 생활용품 등 다양한 소품이 갖춰져 있다.

세트장 입구 관광안내소에서 팸플릿을 챙기는 것은 필수. 건물 하나하나마다 안내 팸말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차장 입구에도 세트장 안내도가 있지만 건축물에 대한 설명을 한 번에 모두 기억하기란 쉽지 않다. 손에 쥘 팸플릿의 설명을 읽으며 세트장 곳곳을 찾아다니면 어떤 건물인지, 어떤 구역인지 훨씬 도움이 된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실감나는 순간이다. 안내 팸말이 없는 것은 시시때때로 이뤄지는 드라마 촬영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세트장의 메인인 김해관이라고 할 수 있다. 드라마 김수로의 주 촬영장소로서 내부에 김수로·허왕옥 침실, 회의장소, 각종 소품 등이 진열돼 있다. 건물 입구에는 얼굴을 갖다대고 김수로와 허왕후처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있다.

3층 건물이지만 관광객들은 건물 2층까지 계단을 통해 올라갈 수 있다. 다만 목조 건물 특성상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와 함께 건물 안에 들어서는 것이 좋다.

김해관에서 바다쪽으로 나오면 해상무역을 위해 배를 대는 곳인 선착장이 자리잡고 있다. 드라마 김수로에서 허왕후가 배를 타고 도착한 모습을 찍었으며, 무사 백동수에서는 전광렬과 최민수의 대결 장면을 찍은 곳이다. 선착장 앞바다에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제자리를 돌고 있는 배가 있으며, 개별에도 촬영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배가 정박해 있다.

김해관 2층에서 다리를 넘거나 세트장 왼쪽으로 이동하면 해안촌 구역에 이른다. 이곳은 신발가게, 대장간, 토기가게 등이 있어 서민들이 사는 모습을 재현해 놓았다. 소박함이 특징이다.

저잣거리는 가야시대 장터를 구현했다. 짐승가죽을 파는 가게, 농기구를 파는 가게, 옷감을 파는 가게, 막걸리를 파는 주막 등이 있으며, 과일 모양 소품도 전시돼 있다.

이 밖에도 드라마 김수로 촬영 시 객사로 쓰였던 가야관, 공동우물 새미고, 마구간, 마방, 철광석 제련 등 우수한 철기를 만들기 위한 비밀연구동, 채집한 철광석을 제련하던 야철장 등이 있다.

전체적으로 가야시대의 건축물을 재현한 세트장은 2010년 조성 이후 여러 차례의 보수 과정을 거쳤다. 세트장의 건축 목적이 드라마나 영화 촬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 만큼 관람객들의 편의시설은 세트장 내부에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화장실도 입구에 있으며, 유모차나 휠체어 등의 이동도 쉽지 않다. 출입금지 또는 관계자의 출입금지 등의 안내문구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석곡리 해양드라마세트장 전경.



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입장료는 무료. 하절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한다. 창원 도심에서 승용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만큼 드라마 촬영 등으로 세트장에 못 들어갈 수도 있으니 찾은 계획이라면 사전에 문의(☎ 055-220-4061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 055-248-3711



세트장 관리실)하는 것도 좋다.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고 드라마를 찍는 세트장을 찾았다는 작은 기대감을 안고 찾는다면 더 큰 만족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글 경남신문 권태영 기자 media98@knews.co.kr 사진=경남신문 성승건 기자

◀(왼쪽)해양드라마세트장 저잣거리 소품들. ▲(위)목조건물 등 주인공의 침실이나 회의장소 등으로 사용된다. 선착장과 연결돼 있고 내부엔 각종 소품이 있다.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의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 예약 및 문의 | 061-392-2114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연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